

통신망연구소등 4개연구소 新設

韓國通信, 通信기술 自立위해

한국통신은 통신기술 자립과 대외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4개 연구소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의 「기술력향상대책」에 따르면 올해 새로 설립하게 될 연구소는 통신망 종합연구소, 정보통신서비스연구소, 통신시스템개발센터, 기술지원센터로 기존 연구소와 유기적인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이들 연구소는 올해 과거 기체로 부터 이관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전문화할 계획이다.

통신망종합연구소는 통신망의 지능화와 고도화등 進化전략수립및 연구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통신망구조와 최적화, 網間 連動, 망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서비스연구소는 정보산업중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히고 있는 정보 통신서비스분야의 기술력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패킷망, 정보통신전용망의 구성과 운용기술, 뉴미디어 관련기술, 정보통신서비스개발 및 진화전략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한다.

특히 이 연구소의 기술력향상을 위해 이미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한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TT)등과도 기술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통신시스템개발센터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을 조기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술지원센터는 기술수준과 표준화에 관한 연구와 기술조사, 적합성 시험연구등을 수행하게 되며 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 하는 역할도 하게할 계획이다.

문서통신시스템 國産化

三星, 국내최초로

三星전자 정보통신부문(사장 鄭溶文)은 3월31일 PC나 FAX등 타기종 미디어간의 문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대용량 문서 통신시스템을 국내최

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三星은 이번에 개발한 문서통신시스템 (모델명DCP·16)이 문서 이미지등의 비음성 정보를 축적,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대용량 메모리 제어기술과 타기종미디어간의 호환기술및 음성제어기술등 고난도 기술을 복합적으로 응용한 첨단통신장비라고 밝혔다.

三星의 DCP·16은 PSTN (공중전화망)이나 PABX(사설교환기)에 접속된 FAX 또는 PC등 타기종 OA기기들간의 정보를 변환 저장처리할 뿐 아니라 문서사서함 재전송, 친견 시간지정전송 전자계시판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 16회선에 2천가입자 단말기가 동시에 운용가능한 이 제품은 데이터 저장능력이 A4용지 1만장이며 1백개의 계시판과 1만개의 사서함을 운용할 수 있다.

大宇, 자외선 차단 섬유가공재 개발

(주)大宇는 3월 2일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섬유가공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大宇 섬유경공업사업본부 소재개발팀이 개발한 이 제품은 한국섬유기술연구소의 시험결과 섬유직물에 처리할 경우 자외선을 90%이상 차단시키고 30회이상 세탁해도 그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평

가를 받았다는 것.

특히 자외선차단용 세라믹 원사를 사용한 특수원단에서만 효과를 볼수있는 日本제품과 달리 거의 모든 종류의 원단에 사용할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大宇는 이 제품을 폴리에스터 면직물 면혼방레이온등에 처리해 운동복 평상복 블라우스 셔츠등으로 상품화할 계획이다.